

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?

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작성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다. 이때가 바로 함수가 필요한 때이다. 즉 반복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"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가치 있는 부분"을 한 덩치로 묶어서 "어떤 입력값을 주었을 때 어떤 결과값을 돌려준다"라는 식의 함수로 작성하는 것이 현명하다.

함수를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함수화하면 프로그램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. 마치 공장에서 원재료가 여러 공정을 거쳐 하나의 상품이 되는 것처럼 프로그램에서도 입력한 값이 여러 함수를 거치면서 원하는 결과값을 내는 것을 볼 수 있다.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 흐름도 잘 파악할 수 있고 오류가 어디에서 나는지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. 함수를 잘 사용하고 함수를 적절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능력 있는 프로그래머이다.

이전에 이미 어떤 변수에 들어있던 값.
기존에 존재하던 값(데이터)이 특정 함수를 거치면,
새로운 값이 탄생하게 된다. (=입력의 가공 단계)

예를 새로운 변수에 넣기 되면,
해당 값(새로운 값)을 추후에
사용할 수 있음.

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
사람은 죽어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듯이,

함수는 죽어서 return 값을 남긴다!